유럽아시아의 골판지 생산량과 성장률

□ 유럽의 골판지 생산상황

국제 골판지상자 협회(ICCA : International Corrugated Case Association)의 레포트에 의하면 유럽의 골판지 최대생산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으로 전 유럽의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독일과 영국은 성장률이 전 유럽의 평균치보다 낮다.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것은 중앙유럽과 동유럽으로 이런 지역에서는 소비자시장의 현저한 발전이 전망되어 저 코스트를 바라는 국제적 상품메이커가 새로운 투자에 의해 이익을 올리고 있다. 중앙유럽과 동유럽시장의 전체적 성장률은 2003년에 5%로 달하고 그 후에도 서유럽의 2.2%에 대해 3.5%를 넘을 것이다.

□ 아시아의 골판지 생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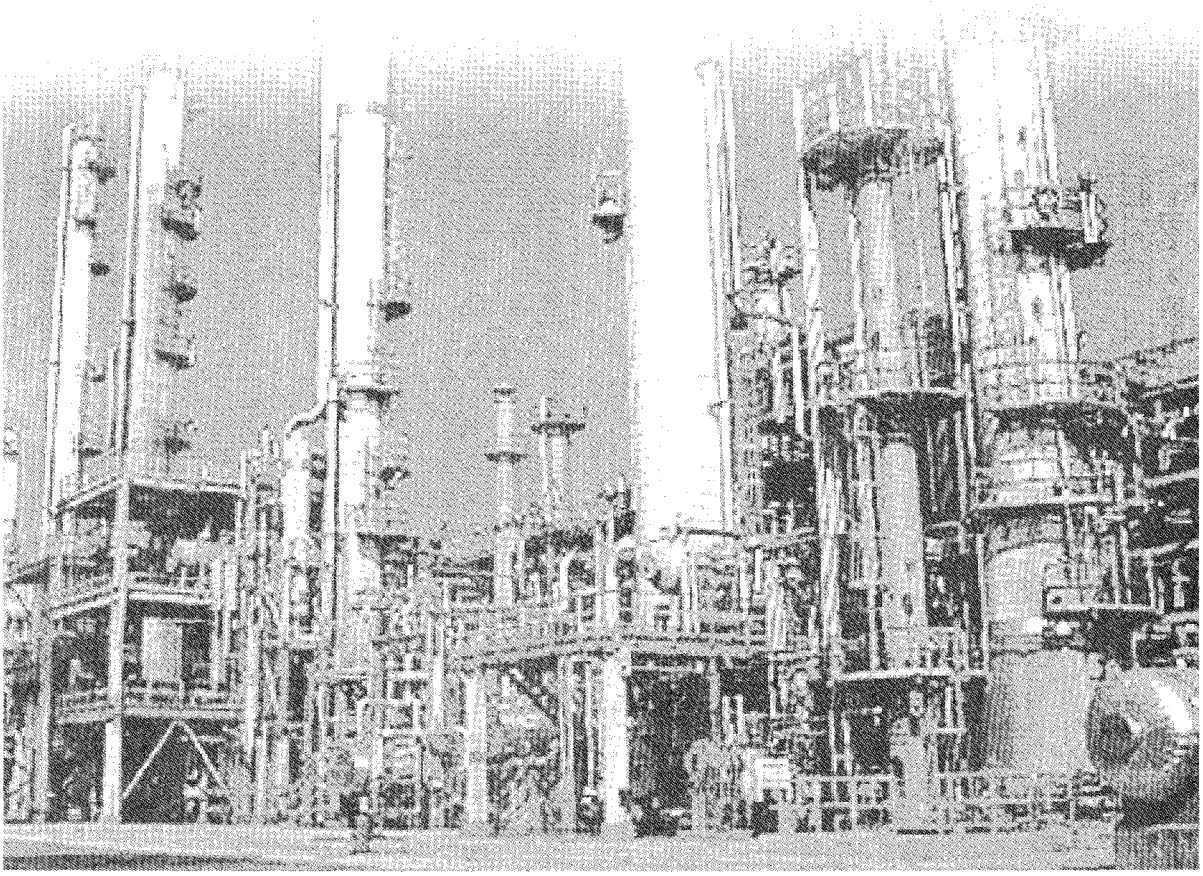
2002년 골판지생산 성장률은 2.9%로, ICCA가 예측한 4.8% 보다 낮았다.

이는 아시아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제총생산)의 예측이 4.5%였던 것에 대해, 실제는 3.9%였던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아시아 중의 2대 시장은 일본과 중국으로, 이 두 나라에서 아시아 전체의 생산량의 2/3을 점유하고 있다. 아시아의 골판지 생산은 앞으로도 이 두 나라의 선도에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나 이 두 나라의 경제 성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정체기미에 대해 중국은 성장이 둔화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는 독일과 태국이 평균치를 웃도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고도성장기로, 독일은 GDP의 신장이 평균치를 웃도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그 성장률은 비교적 작아 골판지 생산의 성장률도 아시아의 평균치보다 작다.

〈Paperboard Packaging Vol.88 No.3〉
유럽 · 아시아의 골판지 생산동향
중국(141억)이 일본을 상회한다.
국제 골판지 협회

국제 골판지 협회(ICCA)의 리포트에 의하면, 유럽의 골판지 생산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 전 유럽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단지 이 중에서 독일과 영국은 성장률이 전 유럽의 평균치 보다 낮다. 가장 성장률이 높은 곳은, 중앙 유럽과 동유럽에서 이곳에 지역에서는, 소비자시장의 발전이 현저히 두드러지고 낮은 코스트를 지향하는 국제적 메이커가 새로운 설비투자에 의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동유럽의 성장률은 2003년에는 5%가 되는 예상으로서, 서 유럽의 2.2%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다. 숫자로 말하면, 2002년 전 유럽의 생산량은 391억 평방미터, 독일 73억 평방미터, 영국46억 평방미터, 이탈리아 59억 평방미터, 프랑스 52억 평방미터, 스페인40억 평방미터 등이다. 단지 생산수량은 적지만,

성장률은 터키 8.6%, 폴란드 15%, 헝가리 18.2%, 루마니아 18% 등으로 높은 수치를 표시하고 있다. 아시아의 골판지생산량은, 2002년의 성장률로 2.9%와 ICCA에서 예상한 4.8% 보다 낮았다. 이것은 아시아의 GDP예상이 4.5%에 비해 실제는 3.9%로 되었던 것이 원인으로 국가별 격차도 크다. 2002년의 생산량은 전체가 430억 평방미터, 국가별 생산량은 일본이 131억 평방미터, 중국 · 홍콩이 141억 평방미터, 한국이 25억 평방미터, 대만지역20억 평방미터, 인도 17억 평방미터 등으로 일본과 중국이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일본이 0%, 중국이 7.5%로 중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 5.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각4% 등이 평균치를 넘어선 성장을 달성한 나라이다. (월간포장 제공)